

□ 검열과 저항의 함수관계

'이유없는 반항'은 없다

전근대적 검열이 양산하는 하위문화

김 종 현

<편집자사>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이물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달레마가 되어왔다. 특히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검열과 규제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올라있는 한국사회에서는 아무리 논의를 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문제다.

검열에 대한 가장 오래된 팜플렛 '아레오파지티카'의 저자 밀턴은 검열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서 검열의 무용론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로마가 기독교화된 지 얼마후 로마교황들이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되자 자신들의 견해를 추종하지 않는 책을 불태우거나 금지시켰다. 마틴 5세의 경우 교서를 발표하여 사악한 글이라고 판단되는 책을 출판금지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글을 읽는 사람들을 영원히 파문시켰다.

마틴 5세의 교서 이후 이단자들을 심문하는 트렌트 공의회와 스페인 종교재판소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나 신념을 거부하는 저작을 중심으로 최초로 금서목록을 작성하였다. 금기야는 검열판인 두세 명의 수도사들로부터 저작물의 '인쇄허가'를 원고의 표지에 받지 못하면 인쇄될 수 없었고 그들의 검열원리에 위배될 경우 원고의 일부가 삭제된 채 인쇄되기가 일쑤였는데 이는 검열권이 억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검열제도가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트렌트 공의회와 교안물이며 가톨릭 교회의 창안물이라면, 그러한 제도는 종교개혁을 막고 기존의 종교권력의 지배당론을 옹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보적 해석과 자유주의 학문을 교묘히 탄압함으로써 대중들의 개혁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중세시대의 검열과 현대의 규제를 절대적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검열과 규제가 기존의 정치적·도덕적 질서의 유지에 위한 수단이라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최근의 검열과 규제가 일한 논쟁이 주로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을 근거로 이뤄진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검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이들이라면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대안문화는 기존질서와 판이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청소년 세대가 지니고 있는 문화를 연구해 온 필 코헨은 하위문화가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문화양식으로 의상

과 의식, 언어, 음악을 들고 있다. 특히 의상과 음악은 이들 하위문화를 인식하는 적절한 기준이 된다. 60, 70년대 미국에서 유행한 히피문화가 청바지와 긴머리, 그리고 강렬한 비트의 락음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50년대 이후 영국에서 등장하는 모드족, 스킨헤드족, 펑크족 등이 기존의 전통적인 언어와 의상에서 벗어난 이상한 옷차림으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찾아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서구의 하위문화는 단지 옷차림과 즐겨 듣는 음악속에서만 기존의 문화와 차별되는 것은 아니다. 서구의 하위문화는 기존의 정치적·도덕적 질서에 저항하면서 제도밖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이다. 미국의 히피들이 기실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운동과 마틴루터 킹, 말콤X의 죽음에서 보이는 추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했다는 점은 마약과 섹스로 얼룩졌다는 식으로 가치절하를 피하는 기존의 질서에 의해 철저하게 배제당한 것이다. 또한 가족중심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화적 연대를 시도하는 히피들은 사회적인 구조안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없었다.

펑크족, 스킨헤드족의 등장을 본 영국의 경우도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50년대 말 영국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그 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과 정체성 위기에서 비롯된다. 이를 다시 세대론적으로 본다면 주류문화에서 비켜난 이들이 보이는 하위문화가 부모세대의 문화와 하위문화 사이에서의 갈등을, 문화적 감수성의 전통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갈등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나타났던 모드족, 파카족, 스킨헤드족 등은 이러한 갈등사이에서 생겨난 일단의 무리들이다.

서구의 예에서도 보이듯이 정치, 경제, 도덕적 억압은 하위문화로 하여금 일탈 혹은 순응을 강요한다. 50·60·70년대를 이어온 서구의 하위문화가 80년대를 거쳐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의심스럽다. 이미 20년도 더 된 서구의 하위문화와 90년대 한국에서의 문화현상을 비교 없이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해도 최소한 그러한 하위문화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몇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러한 공통점은 경제적 풍요가 뒷받침한다. 영국에서의 전후 노동자 계급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모드족 등이 나타났다는 점과 히피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60년대 미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한국사회가 90년대 들어 일정한 경제성장 속에서 청소년기의 소비가 전제조건 중 하나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데 반해 전근대적인 규율과 규제가 존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탈의 형태로써 하위문화를 낳고 있다는 데 이르게 된다.

따라서 검열과 하위문화간에는 일정한 연관이 존재한다. 기존 질서에서 본다면 이단자로 보일만한 하위문화도 결국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억압된 사회구조에서 파생된다.

검열론자 측에서 내세우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이 오히려 규제로 인해 일탈과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상은 아이러니다. 다시 밀턴으로 돌아와 검열제도로 인해 국가전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이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배적인 담론만을 강요하는 그들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사상과 표현이 사장됨으로 인해 보다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예측이었다.

흔히 말하듯 '이유없는 반항'이 하위문화를 설명하는 적절한 표현일 수는 없다. 이유없는 반항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유없음'을 근거로 해서 이제까지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막으려 해왔던 제도와 권력에 생각이 미친다면 이유없는 반항이란 허구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좀더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보장되는 사회구조가 이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음란성과 폭력성이라는 죄목으로 최근 검찰의 소환을 받은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 (사진: 세네21)

▼신촌일대의 라이브클럽은 뜨거운 젊음의 열기를 내뿜는다. 사진은 '드럭'에서 공연하는 록밴드 노브레인 (사진: 한겨레21)



시리즈—경희의 유산을 찾아서

⑪ 경희의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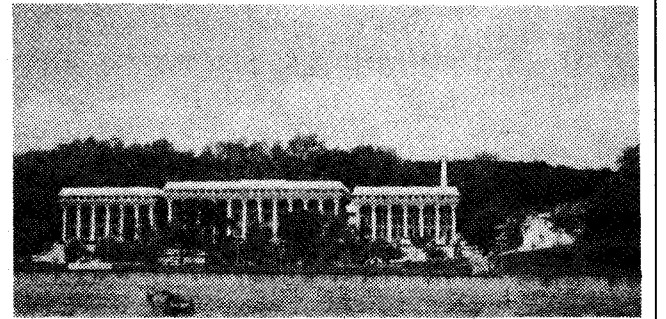
오일환, 이연의

<중앙박물관 연구실>

고개는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게 되는 비탈진 곳'이나 '어떤 일의 고비나 결정'을 뜻한다. 그리고 사람의 나이에 붙여 '성숙의 단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 속담에 '채는 넘을수록 험하고 내는 건널수록 깊다' 하여 갈수록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뜻도 있다.

중국의 '후한서' 이용편에는 후한말기 조정의 문란과 환관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이용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이 기강을 바로잡아 천하의 모범으로 칭송받았다는 등용문(登龍門)에 관한 고사가 있다. 본래 용문은 황하 상류의 골짜기 이름으로 급류가 워낙 심해 물고기가 이곳에 오르기 힘들지만 일단 오르지만 하면 순식간에 용으로 변한다는 곳이다. 용문에 오르려면 능력과 스스로의 힘을 갈라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경희캠퍼스에는 무명의 언덕길이 많이 있다. 서울캠퍼스에는 대운동장 선승문 앞을 지나 경희의 탑을 향해 오르는 세칭 '할딱고개'와 도서관에서 대자보판에 이르는 고개 및 호텔 경영전



▲수원캠퍼스 무명의 '할딱고개'

문대학에서 사범대나 선행로 가는 경희언덕길이 있다. 수원 캠퍼스에는 체육대학에서 산업대까지 이르는 할딱고개와 산업대에서 자연대로 향하는 언덕길이 있다. 고개는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 혹은 발전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좁은 고개길을 힘써 올라가 정상에 서면 출발할 때 불확실했던 의심도 사라지고 분명한 확신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목표와 행로를 계획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조망의 능력도 가지게 된다.

경희는 이제 사십고개를 넘어 오십에 들어서게 된다. '논어'의정편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십이면 불혹이고 오십이면 지천명'이라고 하였다. 경희학원은 수원 서천리와 광릉에 새로운 배움터를 세우고 '제 2트레드스텝'을 이룩하여 온누리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학문에 대한 사랑을 토대로 정신과 문화를 변화시켜 새로운 문화세계를 창조하는데 기여하는 경희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정규교육 최고의 학습장이자 사회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개이기도 하다. 경희인은 확실하게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젊음의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대학이라는 고개를 성실하게 넘어가야 한다. 또한 21세기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고개를 넘고 있는 지금 조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인류가 지향해온 평화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술단신

국제학술회의 개최

우리학교 평화복지대학원은 제16회 유엔 제정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 오늘부터 3일까지 수원캠퍼스와 이 대학원에서 '21세기의 현실과 전망: 동아시아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미국 버클리에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 프린스턴대 로버트 길핀, 펜실베이니아대 이장식 교수, 고려대 한승주 교수, 연세대 안병준

교수, 경희대 조인원 교수 등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들이 참석한다. 토론은 '전환기의 세계정세', '동아시아: 변화하는 세력균형', '한반도: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3개 분파로 나눠 진행된다.

문의는 0346)556-7621~5

건강강좌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통증치료에 대한 건강강좌를 매달 첫째 화요일 개최하기로 하고 첫번째 강좌를 오는 2일 오후 1시30분 이 병원 대강당에서 연다. 문의는 02)590-1547

Yahoo! 선정 COOL EVENT- LG 21세기 선발대 인터넷 생중계! LG전자가 개발한 손바닥만한 휴대용 PC Handheld PC를 이용해 해외 및 지방동호회 LG 홈페이지로 전용 인터넷으로 생중계 LG21세기 선발대 이벤트(http://www.lg.co.kr/21c)가 Yahoo! 선정 'COOL EVENT'로 뽑혔습니다.

미리가 본 21세기, 그곳엔 벤처정신이 꿈틀대고 있었다.

D-3. 꿈이야 생시야, Handheld PC 까지!

접속해 LG 홈페이지에 띄우는 일. 이름하여, BROADCAST가 아닌



정보기술분야의 벤처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찾아 미국과 대안을 다지는 기업들.

와우! LG 21세기 선발대로 뽑힌것도 꿈만 같은데 인터넷 생중계 팀으로까지 선정되다니. 인터넷 생중계란 매일매일의 21세기 선발대 활동내용을 현지에서 직접 인터넷에 CYBERCAST라. 이를 위해 손바닥만한 컴퓨터 Handheld PC까지 지급받았다. 이제 출발 사흘전. 근데 우리 진짜로 가는거 맞아?

옛시때. 공룡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미국 산호세에 있는 IBM 본사를 방문. 대기업에 벤처제도에 관해 알게되었다. 개인 혹은 부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성·기술·인력 시스템이 바로 그것. IBM 같은 대기업도 벤처기업활동에 눈물리고 있다는 얘기가. 공룡처럼 거대한 덩치의 조직을 융통성있는 소규모조직으로 바꾸는 일. 그게 바로 21세기에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등의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지원하는 살아남는 생존책 아닐까.

얼나올. 무일푼이라도

어려움은 거의 없었다고 말하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대만의 실리컨벨라라 불리는 신죽단지에서 우수업체로 손꼽히는 Weltrend Semiconductor社의 사장과 만났다. 우리의 관심은 그의 창업과정. 놀라웠던 건, 그가 창업시 자금상의

을 여름에도 LG 21세기 선발대가 세계의 선진문화와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LG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초우량의 천장에서 세계최고로 배워 초우량한국을 실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LG/인재개발위원회

인터넷 채용정보: http://www.lg.co.kr